

## A Daily Bread

날짜: 5786년, 10월 10일 (2025년 12월 31일)

토라 롬: Vayechi (거주하다)

주제: 살아있는 유업

야아콥은 죽음을 앞두고 침묵 속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 정직하게 바라보며 진실하게 축복했습니다. 라쉬(Rashi)에 따르면, 야아콥은 종말의 때를 계시하며 밝히고자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미래를 통제하는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대신 야아콥은 명확함과 사랑으로 현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각 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지목해 알려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는 야아콥의 집념입니다. 라쉬는 야아콥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통찰력 때문에 이집트(미쓰라임)를 거부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 시대의 번영이 결코 영속하는 하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람반(Ramban)은 이 통찰을 심화하여, 그 약속의 땅에 매장되는 것은 창조주 맷으신 언약이 땅에서 유배되는 것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며, 그 언약의 약속은 땅에서 누리는 순간적인 안락함보다 더 견고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가르칩니다.

야아콥의 권위는 빈수례와 같이 요란하지 않으며, 연속적이며 견고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기 자신 너머를 가리키는 용기라고 조용히 지목합니다.

요셉의 삶은 승리가 아닌 "절제" 가운데서 그의 최고조에 달하십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었음에도, 그의 마지막 말은 그곳에서 안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엘로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호와 엘로힘께로 돌리리며 선포하십니다. 라쉬는 이 말 속에서 구원의 암호화된 약속을 듣습니다. 람반은 더 대담한 점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즉시 매장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지체"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관은 이집트에 남아 침묵을 통하여 아주 적적한 소리를 내며,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실 언약의 성취"의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스포르노(Sforno)는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읽는 법을 가르쳤다고 덧붙입니다: 역사는 정치적 성공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 읽는 것이다.

요셉의 리더십은 이야기를 너무 일찍 끝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갈망, 즉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기다림이라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리더가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은 정답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다원은 죽음의 문턱에서 쉴로모(솔로몬)에게 유언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언약으로 주신 왕권을 미화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모쉐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왕상 2:3). 라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창조주께 "선택 받은 왕조" 조차도 거룩하신 여호와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명령 아래에 있다.

다원의 말은 책임 없는 권위가 네궤쉬(영혼)를 녹슬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스포르노는 다원이 유언으로 솔로몬 아들에게 남긴 정의의 미완성 과제들이 복수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된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리더십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복잡함들을 단순화 시키며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함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지혜로움으로 맞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탈무드(브라콧 4a)는 다원을 낮에는 백성을 다스리고, 밤에는 토라에 스스로를 전적으로 내맡기셨던 왕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토라에 복종한 그 자체가 그의 위대함입니다. 다원이 보유했던 그 통치의 권력이 왕인 그 자신보다 더 높으신 존재, 여호와 엘로힘의 앞에 고개를 숙일 때만 생존할 수 있음을 실증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권위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아시는 여호슈아(הושע)께서 몸을 낮추시고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요 13:4). 권력 정당성의 인정을 요구하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여호슈아께서는 무명(obscurity)을 택하십니다. 권능의 주인이 후하게 대접받는 세속 문화 속에서 그분은 스스로 내려가시어 그보다 작은 자들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성경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칭한 모쉐와 같이, 네짜림의 도, 여호슈아께서 겸비란 연약함의 표증이 아니며, 겸비가 바로 온 세상을 영유하도록 살아 숨 쉬는 진리임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라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 13:7). 요셉의 관처럼, 이 행위는 이해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권위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체득됩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 스며들어 상상을 구체화하고, 언젠가 똑같이 무릎을 꿇게 될 미래의 리더들을 형성합니다.

성경적 전통은 의인이 살아 생전보다 죽음 이후에 더 위대할 때가 많다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그들이 권력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야아콥은 축복하셨고, 요셉은 희망을 뿌리내려 주셨으며, 다원은 훈계하셨고, 여호슈아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작은자들을 섬기십니다.

이 모든 의인들은 그들의 권위가 나누어질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얼마나 오래 통치할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습니다. 영속하는 권위는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고, 스스로 절대 진리에 복종하며, 사랑으로 흘러 나가는 내림의 권위입니다. 창조주 부여해 주신 권력이 축복으로 승화될 때, 물리적 세계를 지나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심은 한 통치 권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의 지도자를 완성시키십니다.

샬롬.